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5호 2016(651~665)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

손승호*

Location and Scope of Nokdundo located in the Dumangang Estuary

Seungho Son*

요약 : 본 연구는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가 어떻게 획정될 수 있을지를 고찰한 것이다. 녹둔도는 두만강의 본류에서 분기한 여러 지류들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로서 18세기에는 섬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가 지류의 물길을 막으면서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러시아의 영토에 연륙되었고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도에서는 녹둔도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묘사되었고 정확하게 그려지지도 않았다. 두만강 하구에서 발생한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두만강의 유로가 사라지고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획정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간행된 기록의 거리정보에 따르면 녹둔도의 범위는 러시아의 연해주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녹둔도의 북쪽 경계를 소두만강(카라식 강)으로 설정하였다. 소두만강은 두만강에서 분기한 지류로서 동쪽으로 흘러 포시에트 만으로 유입하는 물줄기이다. 녹둔도는 두만강과 소두만강에 의해 각각 한반도 및 연해주와 분리되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소두만강이 두만강과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두만강 하구에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크고 작은 여러 하중도를 형성하였는데,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섬들의 집합을 녹둔도로 총칭하여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어 : 두만강, 녹둔도, 소두만강, 하중도, 크라스노예 셀로

Abstract : This paper tried to delimitate the location and scope of Nokdundo located in the Dumangang estuary. In 18th century, Nokdundo was an alluvial island formed by several tributaries divided from the mainstream of Dumangang. In the mid-19th century, Nokdundo was connected to the Russian territory because some tributaries were blocked by sediment flows. In many maps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the location and size of Nokdundo had not been depicted consistently with each other nor been described correctly. Because of the recurrent extinction-generating phenomena of waterways of the Dumangang due to sedimentation process, the location and scope of Nokdundo can be delimit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ra. According to the distance information of the records published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the scope of Nokdundo can be extended widely t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So, the author have set the Sodumangang(Karasik River) as the northern boundary of Nokdundo. The Karasik River is called Sodumangang by the Koreans living in the Maritime Province. As a tributary of the Dumangang, Sodumangang flows into the Posyet Bay. Nokdundo was an island sepa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ritime Province by the Dumangang and the Sodumangang respectively. Tributaries of the Dumangang have formed many alluvial islands at the mouth of Dumangang where the Dumangang meets with the East Sea. So, the possibility that Nokdundo was consisted of several islands can not be excluded.

Key Words : Dumangang, Nokdundo, Sodumangang, alluvial island, Krasnoe Selo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sonsh@korea.ac.kr

1. 서론

두만강 하구에서 하중도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진 녹둔도는 연해주의 남단에 자리한다. 연해주는 발해국이 멸망한 이후 일시적으로 다른 민족의 점령지가 되기도 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우리 한민족의 주요한 활동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마주하는 연해주는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형성하는 두만강에 의해 영유권이 분리되어 있다. 청나라는 1858년에 러시아와 아이훈조약(愛琿條約)을 체결하여 헤이룽 강의 이북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우수리 강 동쪽에 해당하는 연해주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후 청나라는 1860년에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여 아이훈조약의 내용을 재확인 한 동시에, 우수리 강 동쪽의 연해주마저 러시아 영토로 내주게 되었다.

녹둔도는 두만강과 연해주 사이에서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연해주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곳이었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토질이 비옥하고 경작할 만한 농경지가 풍부하여 일찍부터 농민들이 농경활동을 실시한 것은 물론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 정부는 1434년(세종 16)에 6진을 개척한 후 녹둔도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둔전을 관리하는 둔전관을 임명하기도 하였다(이원명, 2009). 녹둔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땅이었으나 지금은 러시아의 영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영토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에 속하였다는 기록은 1840년에 독일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지도에 두만강 하구의 동해상에 'Lok tun to'로 기록되었다.[1)]

역사적으로 녹둔도는 조선 전기부터 동해를 따라 한반도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고 북방에 거주하던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막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이왕무, 2011). 두만강 본류와 그로부터 분기한 여러 지류에 의해 하중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녹둔도 일대는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두만강의 범람과 유로 변경에 의해 러시아의 영토와 연륙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녹둔도의 크기는 물론 정확한 위치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어렵게 되었다.

녹둔도에서는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농경활동이 영위되었지만, 두만강 하구의 자연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면서 사람의 거주와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장마가 지거나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녹둔도 일대가 거의 물에 침수되면서 습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녹둔도 일대는 지금도 농경활동을 영위하기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아니다. 이 일대는 비교적 기복이 심한 저산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철이 되면 사람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 되어 버렸다. 특히 러시아의 영토팽창야욕이 극에 달하면서 스탈린의 이주정책에 의하여 극동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녹둔도 일대는 버려진 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녹둔도 일대는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자리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술한 것처럼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녹둔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영토회복이나 영유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에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조선시대에 이순신이 녹둔도의 방어 책임자이기도 하였는데, 녹둔도가 베이징조약으로 인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므로 우리 영토로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 및 범위 등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 하구의 조그마한 섬으로만 알려진 녹둔도의 위치와 그 범위가 어떻게 획정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녹둔도는 두만강의 유로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두만강의 지류 사이에 형성된 하중도의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섬의 크기가 빈번하게 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거 특

정 시점의 녹둔도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과 고지도를 참고하여 녹둔도의 지리적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위치 획정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녹둔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녹둔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녹둔도가 현재 러시아의 영유권에 속해 있고,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러시아의 변경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녹둔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둔 영유권 문제에 집중되었다. 1860년의 베이징조약으로 인해 청나라가 두만강 건너편의 녹둔도 일대를 러시아에 넘겨주면서 발생한 영토취득의 권원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 대하여 녹둔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녹둔도를 다시 우리나라의 영토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주된 것이었다.

영유권 문제의 대상 시기는 1860년 이후부터 북한과 구소련간에 국경조약이 체결된 1990년까지의 기간을 대부분 포함한다. 영유권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역사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녹둔도가 하중도로 존재하던 조선중기까지 녹둔도 일대에서 둔전 방식으로 농경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연륙작용으로 러시아의 영토에 붙어버리면서 베이징조약과 함께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이 규명되었다(김경춘, 1985; 노계현, 2001; 양태진, 1997). 이와 더불어 박명용(2005)은 17세기 중반 이후에 펼쳐진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역사를 재조명하고 녹둔도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에서 벌어진 한국과 러시아의 영토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베이징조약이 체결된 1860년까지 녹둔도는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되지 않은 땅이었음을 밝혔다. 반병률(2010)은 한인이주사의 관점에서 녹둔도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의 마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1860년 이전부터 녹둔도에 한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은 사료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1875년 이후 조선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녹둔도에서 중심 마을과 그 주변의 한인 마을을 크라스노예 셀로(Krasnoe Selo)라 불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2)]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영유권 문제보다는 녹둔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녹둔도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기석 등(2004)은 두만강 하구에서 녹둔도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녹둔도의 지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공간 범위를 획정한 바 있다. 그들은 러시아 핫산의 남쪽에 자리한 지역을 답사한 후, 과거 우리 민족이 농경활동을 실시하였던 농경지를 비롯하여 한인들이 거주하던 집터, 한인들이 사용하였던 연자방아와 뇟쇠밥솥 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핫산의 남쪽에서 두만강과 동해에 둘러싸인 지역을 녹둔도의 범위로 추정하였으며, 과거 녹둔도가 섬이었을 때의 경계는 서쪽이 두만강이고 북쪽이 녹둔강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3)] 녹둔강이라는 명칭은 이들 연구자들이 녹둔도의 북쪽 경계라는 의미에서 명명한 것이다. 녹둔도의 실질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이옥희(2004) 역시 지형 및 유로의 변화가 심한 두만강 하구에서 조선시대의 흔적을 발견하거나 녹둔도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물론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대신 녹둔도에 설치되었던 토성(土城)의 위치를 통해 개략적이나마 녹둔도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녹둔도의 영유권이 러시아에 귀속된 정당한 법적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녹둔도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고찰한 노영돈(2005)은 이기석 등(2004)이 우리 민족 특유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점을 녹둔도로 간주한 것은 무리한 결론 도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노영



그림 1. 러시아 핫산 일대의 녹둔도(필자 촬영, 2015년 6월)

돈(2005)은 유물이 발견된 그 지점은 한반도에서 이주해 간 우리 민족이 정착생활을 영위하던 곳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함께, 녹둔도의 위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왕무(2011)는 두만강이나 녹둔도가 조선정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변방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실질적인 현지조사 없이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는 내용이나 기존 자료를 토대로 녹둔도의 위치를 비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녹둔도를 묘사한 고지도에서 위치나 범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안재섭(2004)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녹둔도의 자연지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녹둔도가 동해와 마주하고 있는 관계로 크고 작은 사구가 잘 발달해 있으며, 사구와 사구 사이로는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저습지가 발달해 있다. 이에 따라 녹둔도는 자연환경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생태관광이나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가 2015년 6월에 실시한 녹둔도 일대의 답사 결과, 녹둔도의 해안가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가 잘 발달해 있으며, 내륙에는 크고 작은 구릉성 산지와 갈대밭,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호소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그림 1). 이들 크고 작은 호수는 고지도에서 대체로 팔지(八池)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3. 기록을 통해 본 녹둔도의 지리정보

1) 지리적 특징

녹둔도 주변에는 두만강 본류와 더불어 여러 지류들에 의해 많은 하중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유로는 현재 구하도로 남아 있다. 두만강 본류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지만, 과거의 지류는 수심이 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조선시대부터 농경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두만강 건너편의 여러 하중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느린 유속과 깊지 않은 수심은 사람들의 통행에 큰 장애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 동쪽에 형성된 여러 개의 하중도를 오가며 농경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녹둔도 일대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세력과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입하려는 세력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즉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여러 지리지 및 지도류에서 한반도의 부속도서 가운데 규모가 크지 않은 섬을 부정확하게 묘사한데 반해 녹둔도 만큼은 다른 부속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술하였다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녹둔도가 매우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는 거의 없다. 한반도의 산줄기 체계를 그린『산경표』에서도 녹둔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장백정간(長白正幹)이 두만강 하구의 조산(造山)을 지나 녹둔도 건너편에 자리한 서수라곶산(西水羅

串山)으로 이어진다'는 정도로 기술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두만강이 범람할 때마다 하류 쪽에 토사가 퇴적되거나 침식작용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유로가 변경되기를 반복하였고 두만강 상류의 토사가 섬 주변으로 밀려들면서 퇴적되어 지류들의 수심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섬과 섬들이 연도되거나 일부 섬은 연해주 일대의 육지와 연륙되기에 이르렀다.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삼각주를 만들어 주던 두만강 동북쪽의 물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18세기 초부터는 연륙작용이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반병률, 2010).

1886년부터 녹둔도 주변을 조사한 후 작성된 일본의 문서 가운데 녹둔도를 가장 자세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녹둔도관계잡철(鹿屯島關係雜綴)」에 따르면, "녹둔도는 수십 년 전부터 강의 물줄기가 변해 섬의 서쪽으로 주요 물줄기가 흐르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거의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녹둔도가 연해주에 육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녹둔도의 연륙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징조약이 체결되었고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 일대가 모조리 러시아에 복속된 것이다(양태진, 1997). 베이징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녹둔도가 완전히 연륙되어 섬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김경춘, 1985). 두만강 물줄기의 잦은 유로 변경으로 인한 녹둔도의 변형이 섬의 위치를 정확하게 획정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성종실록』 17년(1486년) 2월의 기록에서 녹둔도의 토양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녹둔도를 이루는 토질이 차지지 않아서 그 흙으로 벽을 만들 경우 모래와 풀을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흙, 모래, 풀을 섞어서 만든 벽은 비바람이 한번 스쳐가면 무너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이 침략해 온다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리고 섬의 제방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홍수로 큰물이 밀어 닥치면 섬 전체가 침몰할 듯 하니 농민들이 녹둔도에 상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다. 조선 성종 때 영안도(함경도) 경차관으로 다녀온 정성근(鄭誠謹)은 조산보의 군민들이 녹둔도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만 수시로 출몰하는 야인들의 침입과 예측하기 어려운 하천의 범람으로 상주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 실제 녹둔도의 토양을 살펴보면 차진 흙은 보기 어렵고 모래와 흙이 섞인 땅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토양에는 갈대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따라서 『중종실록』 4년(1509년) 4월과 5년(1510년) 3월의 기록에서 녹둔도의 토질이 비옥하다고 기술해 놓은 것은 두만강 하구의 모래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보다 북쪽으로 펼쳐진 농경지에 대한 설명일 것이며, 이는 곧 녹둔도의 범위가 북쪽으로 보다 넓게 펼쳐짐을 시사한다.

조선 선조 때에는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1583년에 둔전이 설치되고 둔전관을 두어 군인들의 농경을 장려하였다. 조선시대의 둔전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화 하였는데, 유수부·목·대도호부는 10결을 넘지 못하였고 현은 6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액화 하였다. 이후 유수부·목·대도호부의 둔전은 20결, 현의 둔전은 12결로 상향되었다(김덕진, 2003). 한편 국방상의 요지에는 5~20결의 둔전을 설치할 수 있었다. 당시 1결의 면적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면적에 차등을 두었는데, 현재로 환산하면 1등전의 면적은 약 10,000㎡에 달하고 6등전의 면적은 약 36,000㎡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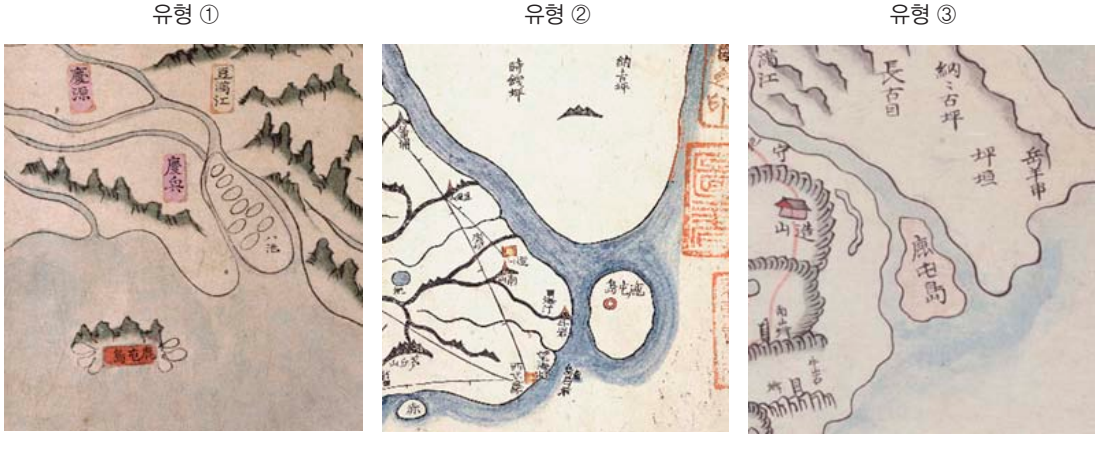
녹둔도에 설치된 둔전의 등급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결은 1만 줌에 해당하는데, 논밭 따위의 면적을 측정하는 1줌은 한 주먹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넓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질이 좋지 않거나 수확량이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1줌의 면적은 넓어지고 1결의 면적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녹둔도에 설치된 둔전이 1등전이었다면 그 둔전의 면적은 5만㎡(5결)에서 최대 20만㎡(20결)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6등전이었다면 그 면적은 18만㎡에서 72만㎡에 달하였을 것이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의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였고 토지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았으므로, 1등전이나 2등전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녹둔도에는 최소 10만㎡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둔전으로 조성되었을 것인데, 두만강 하구 부분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면 경작이 가능한 토지 10만㎡는 결코 좁은 면적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녹둔도의 범위는 지금까지 알려진 두만강 하구의 조그마한 섬보다 훨씬 광범위한 곳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녹둔도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하나로 호구 자료를 들 수 있다. 경흥군의 조산보에 다녀온 어윤중이 고종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녹둔도의 인구구성은 모두 조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타국민은 전혀 없었다. 일본은 녹둔도가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된 후 녹둔도에 간첩대를 파견하여 여러 해에 걸쳐 첩보활동을 하면서 기밀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문서에 녹둔도의 호구 자료를 포함시킨 바 있다. 「녹둔도관계잡철」에는 10여 건의 문서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녹둔도의 호구는 기밀 제46호에서 70−80명으로 기록하였고, 기밀 제14호에서는 30호, 기밀 제15호에서는 50여 호, 기밀 제76호에서는 140여 호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양태진, 1993). 보고자에 따라 문서에 기록된 호구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쓰네야(恒屋盛服)가 1904년에 발행한『朝鮮開化史』에 따르면 3개의 마을에 130−140호가 거주하였다.[4)]

녹둔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고종대인 1880년대 말에 이르러 러시아가 녹둔도를 점유하면서부터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를 토대로 간행된『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에 따르면 녹둔도에는 113호에 82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녹둔도의 호구수는 조사 시기에 따라 비교적 편차가 크다. 1880년대 중반에서 1900년대 초반의 상황을 기록한『아국여지도』에 기록된 호구수와 1904년에 간행된『朝鮮開化史』에 기록된 호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1890년대에는 녹둔도에 800명 이상이 거주하였을 것이고 그 공간적 범위도 두만강 하구에서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방향으로 넓게 펼쳐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하는『아국여지도』에 제시된 녹둔도의 범위가 조선 후기 녹둔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녹둔도의 면적에 관한 기록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문서나 사료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기석 등(2004)과 안주섭 등(2011)은 최대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1890년 원산 대리영사로 근무하였던 히사미즈(久水三郎)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문서 가운데에는 녹둔도의 범위가 남북 최장 25리, 동서로는 최대 20리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朝鮮開化史』에서는 4㎢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아국여지도』에서는 동서로 40리, 남북으로 70리를 녹둔도로 기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녹둔도의 면적은 100㎢를 훨씬 상회한다.



『광여도』「요계관방지도」 『대동여지도』 『해동지도』

그림 2. 고지도에 표시된 녹둔도의 위치

2) 녹둔도의 위치

현재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 획정이 어려운 이유는 조선시대 이후에 작성된 지리지나 지도류의 기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유로변경에 의해 녹둔도 일대의 지형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고지도에서 녹둔도를 묘사한 유형은 위치 관계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유형 ①은 두만강 물줄기와 무관하게 동해상에 고립된 섬으로 표기된 경우이고, 유형 ②는 두만강 하구의 동해상에서 동해와 두만강의 경계부에 위치한 경우이며, 유형 ③은 두만강 물줄기에 녹둔도를 그려 넣은 경우이다. 이 가운데 유형 ②의 빈도가 가장 높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에서는 모두 동해상에 고립된 섬으로 그려졌으며,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두만강과 동해의 경계부로 녹둔도의 위치가 변화하는 경향이다. 『1872년 지방지도』「경흥」에서는 러시아에 연륙된 것으로 녹둔도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문헌 역시 녹둔도를 하천이나 바다에 존재하는 섬으로서보다는 지금의 러시아 영토와 연륙되어 육지화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다수의 지도를 보면 조선인들이 녹둔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한 것은 분명하지만 변방에 자리한 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위치정보나 지리적 조사에는 크게 주안점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녹둔도가 함흥이나 연해주 쪽으로 치우쳐져 위치하거나 두만강의 하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위치하도록 작성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 규모가 작거나 중요도가 낮은 섬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녹둔도에 대한 지리정보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녹둔도의 지명과 위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두만강 물이 공주(孔州)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 25리 정도를 흐르면 사차마도(沙次麻島)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강물이 나뉘어져 5리 정도 흘러가다 동해로 유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주(孔州)는 함경북도 경흥의 옛 지명이고, 녹둔도는 세조 원년(1455년) 8월 이전까지 사슴을 의미하는 이 지방의 방언인 사차마도(沙次麻島), 사차(沙次), 사혈(沙穴) 등으로 불리었으며 청나라에서는 서사하도(西思河島)라고도 불렀다. 이 내용에 따르면 녹둔도의 위치는 그림 2의 유형 ③에 해당하지만, 조선 초기에 그려진 지도에서 녹둔도는 모두 유형 ①처럼 묘사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녹둔도의 지리정보가 상당히 부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81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과 165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 등에 따르면, 녹둔도는 "경흥부의 남쪽 56리 지점에 자리하며 두만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고, 함경북도의 조산에서는 20리 거리에 위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초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로기략(北路紀略)』에서도 이들 지리지와 같은 거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1860년대에 간행된 『대동지지』에서는 녹둔도가 경흥으로부터 동남쪽 80리 지점에서 두만강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 있는 섬으로 기술하였다. 『경흥도호부읍지』에서는 경흥부의 남서쪽 70리 떨어진 곳에서 두만강이 동해로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하며, 함경도의 조산보에서는 30리 지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들 문헌에서 위치정보가 다소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두만강변에 있던 경흥의 구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녹둔도를 위치시킨 것이다. 경흥부의 구읍치에서 두만강이 동해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3㎞이다.

위에서 언급된 거리는 녹둔도의 중심지로 간주된 지점까지의 거리인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에 상주인구가 많지 않았던 녹둔도의 북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 제시된 행정구역별 거리가 행정경계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지 않고 중심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고려하면, 경흥부에서 녹둔도까지의 거리 역시 경흥부의 구읍치에서 녹둔도의 중심취락이 자리한 지점까지의 거리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녹둔도의 중심 취락이 두만강 하구(현재 핫산의 남쪽)에 자리하였음은 1910년대의 모습을 그린 『조선지형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에서 당시 녹둔도의 중심 취락은 상소(上所) 마을이었으며, 이 마을에 한인마을의 사무소인 크라스노예 셀로 사무소가 입지하였다. 두만강 동쪽에 위치한 상소 마을의 남쪽으로는 크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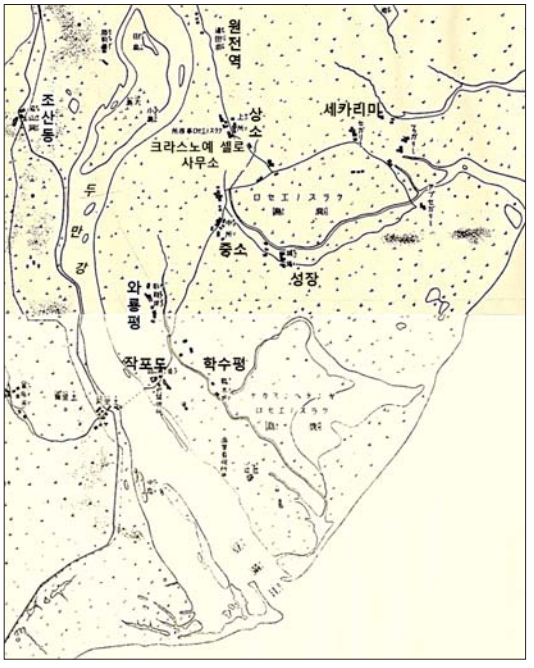


그림 3. 녹둔도와 크라스노예 셀로



그림 4. 상소 마을과 주요 장소의 위치

노예 셀로(クラスノエセロ)와 녹도(鹿島)가 병기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에 제시된 크라스노예 셀로 일대가 녹둔도의 중심지에 해당하고 그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녹둔도의 범위가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크라스노예 셀로가 녹둔도의 모든 마을을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다. 크라스노예 셀로는 엄밀히 말해 녹둔도에 모여 있던 11개의 작은 마을을 아우르는 명칭이었으며, 이들 마을은 크라스노예 셀로의 사무실이 입지하였던 상소 마을과 그 주변에 분포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소(上所), 중소(中所), 성장(城場), 원전역(遠田驛), 와룡평(臥龍坪), 작포도(雀浦島), 학수평(鶴水坪), 앞세까리미, 소까리미, 세카리미 등이 크라스노예 셀로에 해당한다.

『朝鮮開化史』에서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에 녹도(鹿島) 또는 녹둔도라 불리는 섬이 있다."라는 기록과 함께 녹둔도의 위치 정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녹둔도는 경흥부에서 동남쪽으로 70리, 조산보에서는 10리 남짓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일본의 외교문서인 「녹둔도관계잡철」에 포함된 문서 가운데 "녹둔도가 경흥부에서 100리에 있으며, 러시아령의 포시에트에서 90리, 옌추(烟秋)에서 140리, 조산보의 성문에서 10리에 있다."라고 기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령 포시에트까지는 90리, 옌추까지는 100리, 청나라의 국경선까지는 12-13정(町)의 거리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녹둔도를 설명한 문서가 있다. 일본에서 거리 측량 단위로 사용되었던 정(町)은 1정이 360척(尺)이므로, 12정은 대략 4,320척이 되고 그 길이는 1,308.96m에 해당한다. 녹둔도에서 청나라의 국경까지의 거리가 1.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청나라의 국경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고 토자패(土字牌)가 설치된 중국의 팡촨(防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녹둔도의 중심 취락인 상소 마을에서부터 포시예트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4km이고 옌추까지는 약 42km에 이른다(그림 4).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언급된 포시예트 및 옌추까지의 거리정보는 녹둔도에 입지한 중심취락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녹둔도의 중심취락은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에 인접

한 곳에 자리하였지만, 중국 팡촨의 남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에 해당하였음을 고려하면 녹둔도의 중심취락과 청나라 국경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조선지형도』에서는 두만강변과 녹둔도 일대에 형성된 호수 주변에 입지한 여러 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나 하천 주변에 마을이 입지한 것은 녹둔도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한인마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이며, 이들 마을의 이름은 강과 호수의 이름을 딴 물과 관련된 지명(hydronym)이다(반병률, 2010). 19세기 후반까지 녹둔도 전역에 걸쳐 취락이 입지했던 것이 아니라 두만강변에 주로 취락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명이 기록된 마을의 위치만으로 녹둔도의 전체적인 범위를 획정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녹둔도의 북쪽 경계인 소두만강[5]의 건너편은 물론 녹둔도에 해당하는 소두만강의 남쪽으로는 한인들의 집단적인 주거공간이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었다. 녹둔도를 비롯한 곳에 형성되었던 한인들의 주거지는『아국여지도』에 '아민구촌(我民舊村)'으로 기록되었고 실제 가옥의 모양으로 취락을 묘사해 놓았다.



그림 5.『아국여지도』의 녹둔도(필자 수정)

19세기 말 대한제국 때에 16년간의 현지답사를 통해 제작된『아국여지도』는 녹둔도의 지리적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그림 5).『아국여지도』에서는 "녹둔도가 서수라(西水羅)에서 30리 거리에 있고, 서쪽으로는 조산보에서 15리 거리, 그리고 북서쪽의 경흥부와는 100리 거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선택(瑞仙澤)과 70리 거리이며, 서쪽으로 두만강을 끼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아국여지도』에 따르면 녹둔도의 북쪽은 서선택으로 묘사되었다.

『조선지형도』의「서수라(西水羅)」도엽과「고읍동(古邑洞)」도엽에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경흥부의 조산 일대와 녹둔도의 남단이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는 현재의 핫산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을 녹도(鹿島)라 기록하였으며, 일본어로 크라스노예 셀로(クラスノエセロ)가 병기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인마을을 일컫는 크라스노예 셀로에는 여러 곳에 취락이 입지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시설물을 살펴보면 두만강변에 염전과 어업감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경흥지방간의 교역을 보여주는 세관이 러시아 영토에 설치되어 있다. 세관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포시에트와 옌추로 향하는 도로는 두만강을 따라 나 있으며, 도로변에는 산발적으로 취락이 입지하였다. 그런데 지도에서 녹도라고 기록된 지명은 취락이 자리한 지역에 대해서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녹둔도의 중심부가 두만강 하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동시에, 녹둔도의 동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녹둔도의 북쪽으로는 좁은 물길이 흐른다는 사실이다. 두만강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녹둔도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한 줄기는 녹둔도의 북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르고 다른 한 줄기는 섬의 서남쪽 방향으로 흐른

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녹둔도의 북쪽을 흐르던 두만강 물줄기가 지금은 두만강의 본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두만강 물줄기의 유속이 느려지고 유로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유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녹둔도는 연해주의 남쪽 부분과 연륙되어 버렸다.

그러나 본래 녹둔도의 북쪽을 흐르던 두만강 지류의 물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금도 그 유로는 남아 있고 하천이 흐른다.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 하천을 소두만강으로 부르고 있다. 두만강에서 분기한 소두만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과거 한인들이 거주하던 레베디노(лебединое, Lebedinoye)의 남쪽을 통과한 후 크라스키노의 남쪽에 자리한 포시에트 만(Залив Посьета, Posyet bay)으로 유입한다. 소두만강이 포시에트 만에 합류하는 지점은 크라베 반도의 서쪽 끝 지점과 마주한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가린-미하일롭스키(Garin-Mikhailovsky, 1852-1906)는 1898년에 녹둔도에서 두만강을 따라 백두산과 압록강을 둘러본 후『조선, 만주, 요동반도 기행(по корее, маньчжурии и ляодун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이라는 여행기를 저술하였다. 가린(Garin)이 참여했던 여행은 러시아지리협회 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단이 철도·천문·지질·삼림·광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여행기의 내용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가린(Garin)은 이 여행기에서 한반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 일대에 대한 여행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두만강 하류를 조사하고 주변지역의 수위 등을 측량한 후 두만강이 과거에 포시에트 만으로 흘러간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두만강이 흘러가는 여러 지류 가운데 하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유로는 옛 물줄기를 따라 흐른다. 물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사라진 물길의 길이는 4.5㎞에 달한다."라고 기술하였다(이희수 역, 2010). 여기에서 언급된 옛 물줄기는 지금의 소두만강을 가리키며, 물길의 이동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녹둔도 일대의 지형적 특징상 유로 변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내포한다. 이 대목에서 두만강의 지류가 포시에트 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점과 사라진 물길의 길이가 4㎞를 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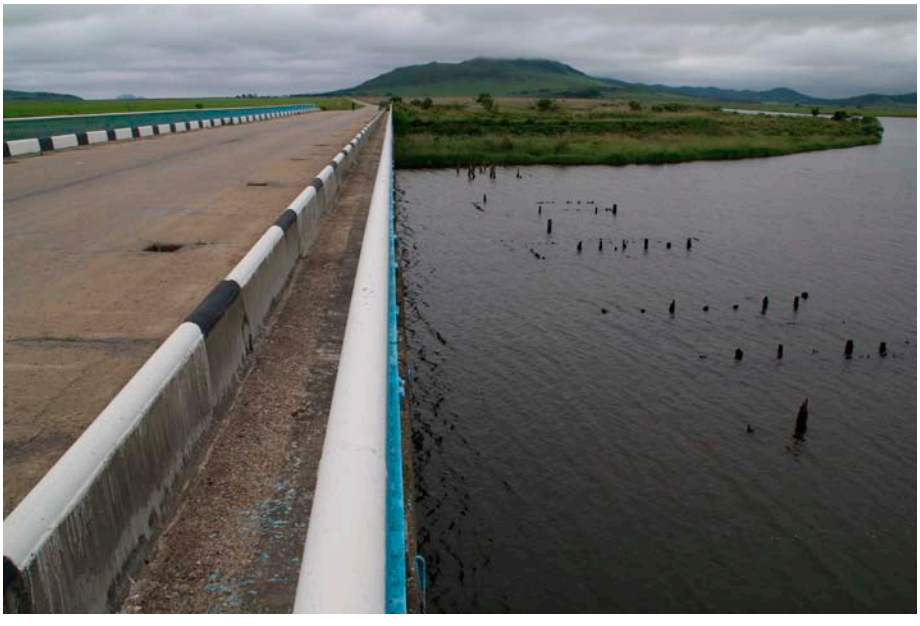


그림 6. 포시에트 만으로 흐르는 소두만강과 그 남쪽의 녹둔도(필자 촬영, 2015년 6월)

두만강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만강 본류까지는 유로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가린(Garin)이 언급하였던 사라진 옛 물길에 해당한다(그림 6).

4. 녹둔도는 어디인가?

여진족은 조선의 변방 방어기지이자 경작지였던 녹둔도를 침략하였으며, 조선은 이에 맞서 대규모의 정벌 작전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는 이순신이 야인의 습성을 지닌 여진족과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인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여진족의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당해 당시 경비 책임자였던 조산 만호(萬戶) 이순신이 해임된 바 있다. 그렇다면 여진족이 두만강 하구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빼앗기 위해 전투를 치렀을 것인지와 여진족에게 녹둔도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진족은 두만강 하구 일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녹둔도를 점령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여진족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만주 일대와 허베이 평원에 비해 거의 가치가 없는 두만강 하구의 조그마한 섬 하나를 빼앗으려 하였다는 것은 여진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대목이다. 즉 여진족이 탐냈던 녹둔도는 결코 좁은 면적과 범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있던 삼각주로, 둘레가 약 8㎞에 불과한 타원형의 조그마한 땅이다(이기석 등, 2004). 이는 사각형으로 환산하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불과하다. 여진족이 이토록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녹둔도의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그마한 땅 하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고지도가 가리키는 녹둔도의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세종 때에 6진을 설치하고 여진족의 약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섬 내부에 길이 1,247척의 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으며, 병사들이 방어하였다는 기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토성의 길이는 약 370m에 이르는데, 둘레가 8㎞ 정도에 불과한 조그마한 섬에 성을 건설하고 군대가 상주하였다면 농경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는 지극히 소규모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녹둔도는 현재 소두만강으로 불리는 강의 남쪽과 두만강의 동쪽에 자리한 지역을 아우르는 범위에 포함되며,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핫산의 남쪽에서 녹둔도로 알려진 땅은 두만강과 소두만강으로 경계가 설정되는 녹둔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정조가 즉위한 후 경흥부사로 재직하던 홍양호는 두만강 하류에서 물길이 자주 바뀌면서 녹둔도가 타국의 영토에 연륙되었고 홍수가 날 때마다 녹둔도 일대의 땅이 날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본래 넓은 범위에 걸쳐 있던 녹둔도가 홍수 피해와 더불어 하천 유로에 의한 분할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아국여지도』에 묘사된 녹둔도의 내용에는 '平原廣野農土肥沃'이라는 표현이 있고, 조선시대의 여러 고지도와 일제강점기의 『조선지형도』에는 시전평(時田坪 또는 時錢坪)과 납납고평(納納古坪)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원이 묘사되어 있다. 녹둔도를 기록해 놓은 조선시대의 지리지나 문헌에는 녹둔도의 토양이 척박하고 농토가 차지지 않다고 표현하였지만, 『아국여지도』에서는 그 이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평원이 넓고 농토가 비옥하다는 의미는 조선 후기 들어 녹둔도의 범위를 두만강 하구에 국한하지 않고 더 북쪽으로까지 확대시켜 인식하였음을 반영한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지형도』「경흥(慶興)」 도엽에서는 경흥부의 구읍치가 두만강변에 위치하고 두만강 건너편으로는 나룻배가 운행하였음을 묘사하였다(그림 7). 경흥읍치에서 두만강 건너편으로는 육로와 함께 물길이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두만강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 주변으로 취락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는 개수곡(開水曲)이라는 지명과 함께 일본어로 개물구비(ケムルクビ)가 병기되어 있다. 구비는 물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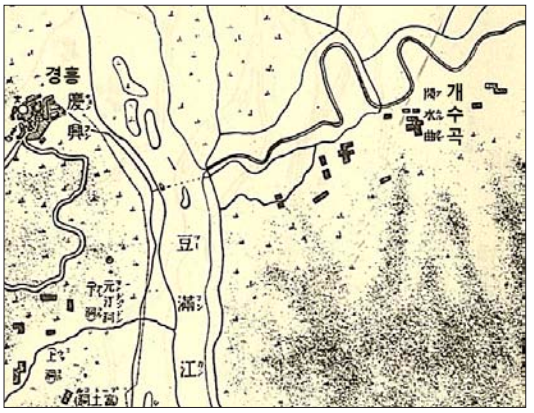


그림 7. 두만강변 경흥부 구읍치와 개수곡

굽이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곡(曲)이라는 한자 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두만강에서 동쪽으로 분기한 하천이 심하게 굽이쳐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명에 해당한다. 두만강 하구를 그린『조선지형도』에는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영토에 자리한 취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우리가 사용하는 지명과 흡사하다. 경흥부의 구읍치를 지나 두만강 하구 방향으로 개수곡(開水曲)을 비롯하여 박석거리(薄石巨里), 양관평(陽關坪), 개척리(開拓里) 등의 마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녹둔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훨씬 넓은 범위임에 틀림없다. 기존에 실시된 일부 연구에 의해 획정된 녹둔도의 범위는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러시아의 국경도시라 할 수 있는 핫산보다 훨씬 남단이었다. 그러나 두만강을 구성하는 유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하천의 범람과 퇴적에 의해 대부분의 유로가 소멸되거나 구하도의 형태로 남아있음을 고려하면 핫산의 남쪽에서 녹둔도의 범위를 획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는 핫산의 남쪽에는 여러 개의 구하도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가 축조한 동해쪽의 제방으로 아직도 물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옛 물길의 위치를 따져 보면 경흥군의 조산에서 바라본 두만강의 건너편에는 여러 개의 섬이 산재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의 섬만을 녹둔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핫산의 북쪽으로는 현재 소두만강이라 불리는 비교적 큰 하천이 흐른다. 소두만강이 지금은 두만강 본류와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두만강에서 갈라져 나온 하천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가린(Garin)의 여행기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두만강이 과거에 포시에트 만으로 흘러들었다)을 결부시키면 소두만강이 녹둔도의 북쪽 경계로 인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아국여지도』에 묘사된 녹둔도의 모습과도 일치한다.『아국여지도』에서는 두만강의 하구 부분이 녹둔도, 서선택, 나선동(羅鮮洞) 등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녹둔도와 서선택의 경계는 그림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소두만강이다. 그림 5에서 아민구촌(我民舊村)이라 기재한 곳은 지도상에서 羅鮮洞我民舊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소두만강 북쪽의 서선택에도 아민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일대는 과거 한인마을이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었던 곳이다. 이 일대의 한인마을은 현재 러시아 지도에서 레베디노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 마을의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 소두만강이라는 사실을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로부터 확인하였다.

그림 7에 제시되었던 개수곡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소두만강의 옛 물줄기이며, 이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아국여지도』를 수정한 그림 5에서 소두만강으로 비정된다. 한편 조선시대에 녹둔도에 설치되었던 둔전을 운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를 고려하면 녹둔도의 북쪽 경계는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녹둔도의 범위는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경흥부 구읍치의 동쪽으로 흐르던 물줄기인 소두만강의 남쪽으로 획정할 수 있겠다. 소두만강의 북쪽에는 한인들의 마을이었던 레베디노가 위치한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서 수슬로바라 불리는 조그마한 반도부가 '노루 꼬리'라는 의미로 통용된다는 사실도 포시에트 만으로 흘러드는 소두만강의 남쪽에 자리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노루 또는 사슴의 둔부임을 반영한다.

또한 소두만강의 북쪽에서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마을인 레베디노를 볼 수 있다. 그림 8에 표기된 레베디노는 스탈린에 의해 한인들이 강제로 이주당할 당



그림 8. 녹둔도의 위치 비정

시에 한인들이 가장 늦은 시기까지 거주하였던 곳이다. 현재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이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는 함경도에서 이주해간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레베디노의 남쪽을 흐르는 소두만강의 물줄기를 따라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면 폭이 넓지 않은 유로가 곡류하는데 소두만강 상류의 물줄기는 두만강 본류와 분리되어 있다. 이 구간이 바로 사라진 소두만강의 물줄기가 흐르던 곳이다.

레베디노가 자리한 곳은 소두만강변이지만 주변지역보다 고도가 높아 하천의 범람에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으며, 동남쪽에 자리한 산의 정상부에서는 소두만강의 남쪽으로 펼쳐진 녹둔도와 섬 내에 조성된 농경지를 조망하기에 유리하였다. 이곳 레베디노에는 과거 한인들이 살았던 집터를 비롯하여 농경지의 이랑과 고랑 등 한인들의 거주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레베디노의 전면으로는 크라스키노에서 핫산을 지나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통과한다.

5. 결론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녹둔도를 관할하는 러시아의 군사통제구역이어서 정확한 현지조사가 지극히 어려운 땅이다. 이런 연유로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를 획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문헌 자료를 통하여 녹둔도의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도나 문헌을 이용하여 녹둔도의 명확한 범위는 물론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지 우리나라의 영토에 속하였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제작된 지도에서 녹둔도가 통일되게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삼각주로 묘사하기도 하였고, 또는 두만강 하구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의 섬으로 그리기도 하였으며, 두만강 하류에 있는 하중도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녹둔도가 본래 섬이었다가 러시아의 연해주에 연륙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지만, 녹둔도의 연륙시기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시기상으로 더 늦게 제작된 지도에서 녹둔도가 섬으로 그려졌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녹둔도가 연륙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와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도서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것도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 획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던 지도류는 물론 새롭게 발굴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녹둔도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특히 과거에 간행된 문건에서의 거리정보를 재해석하였다. 조선시대의 각 방면별 거리정보가 중심취락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지, 행정경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두만강 서쪽의 경흥부에 자리한 각 지점에서 녹둔도까지의 거리정보는 녹둔도에 자리한 취락 가운데 중심지 지위를 점한 취락까지의 거

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녹둔도의 끝지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거리정보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건은 물론 일본에서 작성한 문서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었다. 이와 더불어 녹둔도가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된 후인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서, 현재는 러시아 영토에 해당하는 두만강의 동쪽 연안을 따라서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늘어서 있는 것으로 묘사된 점도 과거 조선시대 이래로 한인들이 녹둔도의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경활동을 영위하였음을 시사한다.

두만강은 하구 부분에서 여러 개의 지류로 물길이 갈라졌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유로가 구하도로 변모하였거나 유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과거의 유로를 찾는 것이 녹둔도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두만강 일대를 답사한 러시아인의 답사기에서도 녹둔도의 북쪽으로 두만강의 지류가 흘러들었으며 그 물줄기는 포시에트 만으로 유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바, 이 물줄기가 녹둔도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데 그게 바로 소두만강이다. 조선시대에 녹둔도 일대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소두만강의 북쪽으로까지 거주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마을을 의미하는 레베디노라는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획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만강 하구에서 일어난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두만강의 유로가 사라지고 생겨나는 과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녹둔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하구 쪽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녹둔도의 범위는 훨씬 광범해질 것이다 또한 녹둔도가 단지 하나의 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두만강 하구에 존재하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을 총칭하여 녹둔도라 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녹둔도를 지칭하는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형적 여건에서 녹둔도의 범위는 핫산의 북쪽에서 동쪽의 포시에트 만으로 유입하는 소두만강에서 두만강 하구쪽으로 연결된 거대한 땅 덩어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에서 언급된 녹둔도의 범위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녹둔도 일대를 흐르는 하도의 변경과정에 대한 지질학적·지형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주

1) 이 지도는 1840년에 독일에서 발행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Karte von der Koraischen Halbinsel(Korai Tsjo-Sjön)」이다.
2) 크라스노예 셀로는 "붉은 마을" 또는 "아름다운 마을"이란 의미를 가지며, 러시아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녹둔(鹿屯), 녹도(鹿屯) 또는 녹평(鹿坪)이라 불렀던 한인마을을 가리킨다
3) 녹둔강이라 명명된 하천 역시 두만강의 지류이지만, 현재의 유로는 두만강과 분리되어 있다.
4)『朝鮮開化史』는 1901년에 발행되었고, 1904년에 두 번째 판이 발행되었다.
5) 소두만강은 한인들이 부르던 명칭이고, 러시아에서는 카라식 강(Karasik river)으로 불린다.

참고문헌

김경춘, 1985, "두만강 하류의 Korea Irredenta에 관한 일고," 백산학보, 30·31 합호, 167-214.
김덕진, 2003, "조선후기 관둔전의 경영과 지방재정," 조선시대사학보, 25, 83-115.
노계현, 2001, 조선의 영토, 지식의 날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영돈, 2005, "녹둔도의 노령화 과정과 그 현재적 음미," 백산학보, 73, 281-329.
박명용, 2005,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의 영토문제," 북방사논총, 4, 37-86.
박종효, 2015, 격변기의 한러 관계사, 도서출판 선인.
반병률, 2010,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하구의 한인마을 크라스노예 셀로(녹둔도)의 형성과 변화," 한국근현

대사연구, 54, 7-38.
안재섭, 2004, “두만강 하류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러시아 핫산지역과 녹둔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8(2), 155-165.
안주섭·이부오·이영화, 2011, 영토한국사, 소나무.
양태진, 1993, “韓國國境線上의 鹿屯島,” 한국학보, 19, 157-174.
양태진, 1997, “연해주 지역의 한인이민과 녹둔도의 영속문제,” 한국북방학회논집, 3, 219-248.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 영, 2004,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옥희, 2004,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3), 344-359.
이왕무, 2011, “조선시대 녹둔도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34(1), 119-150.
이원명, 2009, “조선 중기 鹿屯島 확보와 北兵使 李鎰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3, 491-520.
이희수 역, 2010,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반도: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по корее маньчжурии и ляодунском у полуострову 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гарин–михайловский),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아국여지도.
日本外務省, 鹿屯島關係雜綴(自明治19年11月 至明治23年9月).
恒屋盛服, 1904, 朝鮮開化史, 博文館, 東京.

교신: 손승호,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sonsh@korea.ac.kr)
Correspondence: Seungho So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e-mail: sonsh@korea.ac.kr)

최초투고일 2016. 9. 13
수정일 2016. 10. 17
최종접수일 2016. 10. 20